

“아시아 도자문화 거점 조성으로 새 도약”

취임 3개월 이어령 국립광주박물관장

국립광주박물관 올 청사진 발표 내달 14일 도자문화관 건립 착공 광주비엔날레 연계 전시회 개최 유적 복원 등 관련 연구도 진행



이어령 국립광주박물관장

국립광주박물관이 아시아 도자문화 거점 조성을 통해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국립광주박물관은 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소통하는 문화공간’을 목표로 한 올해 청사진을 내놨다.

취임 3개월을 맞은 이어령 관장은 “광주박물관은 광복 후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국립박물관이다. 1978년 개관해 45년간 지역의 역사·문화를 밝히는 학술연구기관이자 지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하는 복합문화기관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해왔다”며 “올해는 광주박물관의 미래 비전을 위해 도자문화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관람 환경 개선,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 발굴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광주박물관은 2018년부터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의 거점’이라는 특성화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박물관

의 강점인 ‘도자기’와 지역 의제인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를 융합해 만든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조사보고서 발간, 특별전시 개최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아시아 도자문화의 핵심이 될 ‘도자문화관’ 건립을 앞두고 있다. 오는 4월14일 착공식이 진행되며 2025년 10월 개관 예정이다.

‘도자문화관’을 통해 한국 도자기뿐 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 도자기에 얽힌 다양

한 문화사를 스토리텔링으로 전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신안 해저문화재(1976년 신안 도덕도 앞바다에서 인양된 중국 송, 원대 도자기 유물)를 전면적으로 전시해 당시 다양한 물품 교류 상황과 새롭게 향유됐던 문화의 면모를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자문화관’ 전시 준비 일환으로 신안해저문화재 중 송원대 경덕진·북건 등에서 생산된 백자 6100여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안해저문화재 조사연구 총서 4-백자’를 발간한다. 전시품을 대상으로 정밀 스캔과 CT촬영 등을 통해 3차원 디지털 원형도 확보할 예정이다.

광주박물관은 4월7일 개막하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해 연계 전시 ‘일시적 주권’을 개최한다. 캔디스 린 등 6명의 현대 작가 작품을 비롯해 광주박물관 소장품인 신안 청자대반 등 200여점을 함께 전시해 역압과 차별을 극복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기획특별전으로 ‘애중(愛重, 사랑하고 소중히 아끼 그림(가제))’을 개최한다. 전시는 오는 9월26일부터 12월17일까지 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며 조선 말 회화사 연구에 중요한 기준 작품들을 최초로 공개해 서화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할 예정이다.

우리 고장의 대표 선사유적인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의 문화경관 복원 연구가 올해에도 계속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창동 유적의 토양시료 등을 분석해 과거의 환경을 복원한다. 역사문화실에 전시 중인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관련 종합보고서도 발간을 앞두고 있다. 석등에 대한 학문적 의미뿐만 아니라 원래의 자리에서 옮겨져 광주 박물관으로 오기까지의 여정을 내용으로 담는다.

동아시아 차문화 연구도 지속한다. 지난해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으로부터 기증받은 초의선사(조선 후기 다도를 정립한 승려) 유물 중에서 유목 관련 해제번역사업의 첫 성과물로 ‘초의선사유목 번역집-시문편’을 발간한다.

전시 및 문화재와 연계한 유아, 청소년, 가족, 성인, 장애인, 노인, 군인, 외국인 등 대상을 세분화한 맞춤형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광주어린이박물관학교 △썩썩! 상상도자여행 △국립광주과학관과 협력해 마련한 박물관 이야기 △광주박물관회와 협력

해 마련한 광주박물관 대학 등 연중 총 15개 교육과정 162회가 예정돼 있다. 판소리 감상회·박물관 속 바이올린·어린이날 신나는 박물관 여행 등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문화행사도 총 10종 28회가 마련된다.

특히 내년 1월까지 ‘어린이박물관’을 개편한다. 6~10세 어린이를 위한 체험 공간과 함께 5세 이하를 위한 유아공간을 신설할 예정이다. 개편 주제는 ‘아시아 도자문화’ 특성화에 맞춘 ‘모두의 도자기’인데,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는 전시·체험·놀이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이어령 관장은 “광주박물관은 젊은 콘텐츠 부족, 교통 환경 불편, 좁은 전시 공간, 미약한 홍보 효과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여러 이유로 공개하지 못한 방대한 문화재가 못내 아쉬웠다”며 “박물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아시아 도자문화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국내외적 위상을 갖추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아울러 지역민과 관람객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이자 지역의 핵심 문화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11시 음악산책’을 첫 무대 ‘을댓 러브 I’

광주문화예술회관, 28일 기획공연 공연마루서 올해 8차례 진행 ‘사랑에 관한 여덟가지 변주’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이 오는 28일 오전 11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올해 첫 공연한다. 올해는 ‘사랑에 관한 여덟 가지 변주, 을댓 러브(All That Love)’를 주제로 총 8회에 걸쳐 공연하며 예술과 사랑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3월 첫 공연 ‘을 댓 러브 I’의 주제는 ‘클림트와 고흐, 꽃과 나무 그리고 하늘과 바다’다. 여러 형태의 사랑 가운데 ‘자연’에 대한 흠모와 갈망을 예술가들의 그림을 통해 발견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클림트의 꽃, 윌리엄 터너의 하늘, 고흐의 나무, 소로야의 바다 등 자연을 사랑한 예술가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첫 무대는 황금빛 화가 ‘클림트, 아테제 호숫가의 꽃’이다. 자연에서 많은 위안과 영감을 받았던 클림트가 연인 에밀리 플뢰게와 함께한 아테제 호수 풍경, 장미정원 등 꽃들을 담아낸 풍경을 감상해본다. 연주곡은 ‘차이코프스키, 꽃의 왈츠’다.

두번째는 ‘윌리엄 터너, 영국의 하늘’을 만나본다. 영국의 국민 작가 윌리엄 터너는 여행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회화를 탐구했다. 그 대상은 하늘이었다. 자연을 경이롭게 표현한 그의 작품세계와 함께 ‘파헬렐, 캐논 변주곡’을 연주한다.

세 번째는 ‘고흐, 생 레미의 나무들’이다. 빈센트 반 고흐는 생 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후 오히려 역동적이며 생명감 넘치는 나무 그림을 유독 많이 그렸다. 사 이프러스, 소나무, 올리브나무, 아몬드 나무 등을 그리며 고통 속에서도 평화와 희망, 강인한 생명력을 꿈꾸었던 고흐를 만나보자. 연주곡은 ‘돈 맥클린, 빈센트’,

‘헨델, 나무 그늘 아래서’이다.

마지막 이야기는 ‘소로야, 발렌시아의 바다’이다. 호아킨 소로야는 발렌시아 바닷가를 빛과 색채를 활용한 그림을 그렸다. 태양 아래 시시각각 달라지는 발렌시아 해변의 여유롭고 경쾌한 분위기를 만나보자. 연주곡은 ‘돌아오라 소렌토로’, ‘오, 솔레미오’ 등이다.

연주는 독일 에센 오케스트라 수석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전경미가 이끄는 메노스 앙상블이 맡는다. 비올라 구정희, 첼로 최수원, 더블베이스 박준건, 플루트 김채림, 피아노 이종은 등이 참여한다. 가이드 김이곤이 공연 해설을 맡는다.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며, 관람권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및 티켓링크(1588-7890)에서 하면 된다. 유료회원 선예매는 7일 오전 11시, 일반회원은 8일 오전 11시부터 순차적으로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 내달 시동

광주문화재단, 참가작품 모집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전통 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한 해 동안 선보일 ‘토요상설공연’ 참가작품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토요상설공연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너널마당에서 진행되는 무대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연 22회와 광주시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단체)를 초청한 기획공연 8회로 구성된다. 매일 첫째 주는 판소리·산조, 둘째 주는 국악창작, 셋째 주는 연희·무용을 공연할 예정이며, 마지막 주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초청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매주 토요일 무등산 일대를 전통 풍류와 가락으로 가득 채울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총 16명 개인, 14개 단체(△판소리, 산조 각 분야별 8인 총 16인 △국악창작 무대 7개 단체 △전통연희 또는 무용작품 7개 단체)다. 선정된 판소리·산조 개인에게는 출연료 100만원이, 국악창작·

전통연희·무용 단체에는 출연료 2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전통예술의 전승과 계승을 위한 전문지식 및 공연 역량을 갖춘 전문 단체(개인)면 가능하다. 단, 종교기관 소속단체, 학교 학위 취득 연주 목적, 출연진 전체 중 30%가 아마추어 수강생으로 구성된 단체(개인)와 전년도 ‘2022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에 참여한 단체(개인)는 접수 불가하다. 2023년도 광주문화재단 창작지원사업(통합공모)에 2건 이상 선정된 단체(개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13일까지이며,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접수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제출서류는 공모신청서, 공연계획서, 공연실적자료 등이며 서식은 광주문화재단(<http://www.gjcf.or.kr>) 및 전통문화관 홈페이지(<http://www.gtcc.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이메일 (gcf_art@naver.com)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통문화팀(062-670-8506)으로 문의. 도선인 기자

남도국악원, 어린이 퓨전국악 공연 ‘엄마를 찾아 떠나는 아리의 모험’ 11일 대극장 인악당… 티켓 무료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1일 오후 3시 대극장 인악당에서 민요그룹 (사)아리수의 초청공연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사)아리수는 민요와 판소리를 활용한 퓨전국악 창극 ‘엄마를 찾아 떠나는 아리의 모험’을 선보일 예정이며 숲속마을에 사는 작은 병아리의 모험이 주된 내용이다.

작은 병아리 ‘아리’는 엄마를 찾아 떠난 모험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엄마를 만난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또 올해 12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진도=백재현 기자

모험’을 선보일 예정이며 숲속마을에 사는 작은 병아리의 모험이 주된 내용이다.

작은 병아리 ‘아리’는 엄마를 찾아 떠난 모험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엄마를 만난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또 올해 12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진도=백재현 기자

빛고을국악전수관, 국악학교 강사 공모… 14일까지 접수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오는 14일까지 국악문화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할 강사 11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부원은 판소리, 장구 등 11개 강좌다. 응모 자격은 전문분야 경험을 가진 강사, 예술고·대학·대학원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졸업자, 무형문화재 전수 조교·이수자·전수자 등이다. 광주 서구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이력서(사진부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경력증명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14일까지

빛고을국악전수관 임시 사무실(서구 풍금로 171번길 7 5층)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구 홈페이지 채용공고 참조 또는 빛고을국악전수관(062-350-4556)으로 문의.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국악문화학교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15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